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10월 25일(수)

윤석열 대통령,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한-카타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 제시 -
- 에너지, 인공지능(AI), 방산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조 -
- 양국 경제인 250여 명 참석, 10건의 MOU 체결 -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25, 수)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교 후 약 50년간 카타르는 에너지 공급을,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서로의 경제발전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양국 간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선박·터미널 등 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전력기 자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AI를 한-카타르 중점협력과제로 설정해 민간 차원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규범 논의에도 양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중장기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민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등 양국 경제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미래 신산업, 건설·인프라, 국방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MOU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카타르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